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8 2023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별밤 이야기
2. 법정 스님 편지
선들거리는 바람결에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당신의 가정은 어떤가? 2
4.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천한 사람 2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바른 법으로써 세상을 가르친다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다른 옷은 입을 수가 없네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 풀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탭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3년 8월 1일 발행, 통권 342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별밤 이야기

자다가 깨어 바깥바람을 쏘이고 싶어 나갔다가, 밤하늘에 무수히 돌아난 별들을 바라보면서 황홀한 시간을 가졌다. 별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무변광대한 우주와 그 신비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밤하늘에 이런 별과 달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아득할까. 우리 마음속에도 저마다 은밀한 ☆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 삶 또한 막막하고 황량할 것이다.

산에 들어오기 전, 한 관상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문득 떠오르곤 한다. 친구 집에 들렀는데 용한 관상가가 왔다고 친구 어머니가 내게 귀뜸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전혀 없어 시큰둥하고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 여자 관상가는 나를 흘깃 보더니 이런 말을 했다.

“학생은 밤하늘에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고고하게 살 상이오.”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며 살 거라는 이 말이 그때는 아주 시적詩的으로 들려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산에 들어와 살면서 밤에 소변을 보러 나가서는 으레 고개를 들어 북두의 성좌에 눈길을 보내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주걱처럼 생긴 그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 불법을 만나 맑고 고요한 산에서 살게 된 인연에 고마움이 저절로 우러난다.

사철을 두고 밤하늘에 별은 뜬지만 봄밤에는 흐려서 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별빛이 영롱하지만 밤 기온이 차가워 오래 지켜볼 수가

없다. 별을 바라보기에는 여름밤이 제격인데, 초저녁은 별들이 제 빛을 발하지 않다가 한밤중이 되면 영롱하게 드러나 별자리를 알아볼 수 있다.

여름철 별자리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은하를 사이하고 커다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백조자리와 거문고자리, 그리고 독수리자리이다. 거문고자리에서 가장 밝은 1등성은 직녀별이고 은하를 건너 맞은쪽 독수리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 견우별이다.

옥황상제 딸 직녀와 목동 견우가 사랑해서 혼인한다. 이들은 너무 행복한 나머지 자신들이 맡은 소임을 까맣게 잊었다. 진노한 옥황상제는 견우를 은하수 건너로 쫓아내고 직녀는 성에 갇힌 채 홀로 베를 짜야 하는 형벌을 내린다. 이들은 일 년에 단 한 번 칠월 칠석날 밤에만 은하수를 건너 만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비가 내리면 은하의 강물이 불어 배가 뜨지 못했다. 그럴 때면 강 언덕에서 직녀가 울고 있는 걸 보고 많은 까치가 날아와 날개로 다리를 놓아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준다고 한다. 칠석 무렵에 까치의 머리털이 빠져 있는 것은 하늘의 다리를 놓느라 애쓴 때문이라고 한다.

사랑하더라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다. 칼릴 지브란이 거문고 줄이 한 가락에 울리면서도 그 선 자리는 따로따로라고 했듯이 것처럼 떨어짐의 사이가 유지되어야 한다. 사랑하면서 동시에 현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게으름이 최대의 악덕임은 사랑에도 예외일 수 없다는 교훈을 견우와 직녀가 말해 주고 있다.

지난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정한 밤하늘에 황홀하게 돌아난 별들을 나는 고개가 아프도록 쳐다보았다. 그러나 별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누워서 보아야 편하고 아늑하다. 지난 여름 담양에서 짠 대평상을 오로지 밤하늘에 별을 누워서 바라보기 위해 구해 놓았다. 잠자

는 일보다는 한밤에 일어나 별을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내 삶에는 훨씬 보람 있는 일로 생각된다.

방에 들어와 불을 밝히고 별밤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지닌 한 친구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그리고 서가에서 별에 대한 책을 펼쳐 들고 별자리를 눈여겨보다가 밖에 나가 은하를 사이한 견우와 직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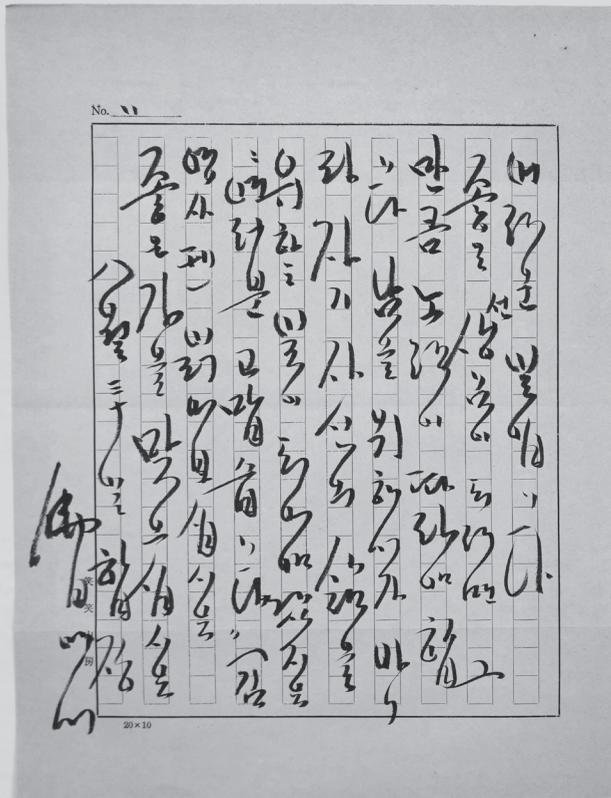
미국의 한 대학에서 물리학과 천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체트레이모의 《별밤 365일》(이태여 옮김)을 몇 페이지 읽었다. 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비록 내가 한 사람의 과학자로 교육을 받았고 이론 천문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하늘에 대한 나의 관심은 과학적이 아니라 주로 심미적이다. 내가 만약 무인도로 쫓겨나 몇 권의 책만을 가지는 것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과학 서적이 아니라 시집이나 자연사自然史에 관한 책일 것이다. 나의 이런 생각은 이 책의 제목에 나타나 있다. 이 제목은 별이 아니라 별밤에 관한 것이다. 내가 그 말들을 쓸 때도 나는 반 고흐의 〈별밤〉이라는 신비한 그림을 연상하고 있었다. 생 레미의 하늘에 대한 반 고흐의 상상력은 소용돌이치는 성운, 달 같은 별들, 그리고 해 같은 달로 가득 차 있으며 꿈에서만 볼 수 있는 별밤 속으로 우리들을 깊이 몰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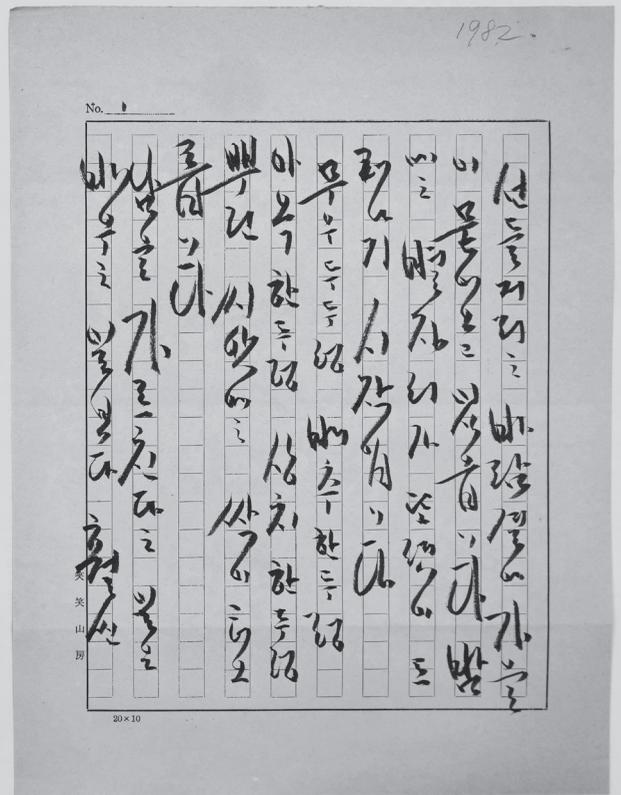
밤하늘은 인간의 상상력을 흥분시키는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친밀하지만 무한하고, 어두우면서도 밝고, 가깝지만 달려가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

별밤을 가까이하라. 한낮에 닳아지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성을 별밤은 부드러운 눈짓으로 다스려 줄 것이다. 1992

2. 법정 스님 편지



선들거리는 바람결에
가을이 묻어 오고 있습니다.
밤에는 별자리가
또렷이 드러나기 시작입니다.
무우 두 두렁 배추 한 두렁 아욱 한 두렁
상치 한 두렁 뿌린 씨앗에는
싹이 터 오릅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일은
배우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그만큼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일이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고맙습니다”(김영사 刊) 읽어보십시오.
좋은 가을 맞으십시오.

八월三十일
합장
佛日에서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유영숙 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당신의 가정은 어떤가? 2

이 글은 법정 스님께서 1996년 5월 22일 맑고 향기롭게 창립 기념으로 대구에서 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내가 송광사에 있을 때 조카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가 왔어요. 그 쪽지를 받아 들자 문득 아, 이제 내 생명의 뿌리가 꺾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어머니들은 생명의 뿌리입니다. 요즘 한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예요. 경제권도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고 자녀 교육 문제도 어머니들이 더 신경을 씁니다. 성급하게 얘기한다면, 부계 사회에서 모계 사회로 서서히 다시 환원되고 있어요. 아마 갈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질 거예요. 따라서 어머니들의 책임감과 각성이 요구돼요.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다고 떠들지만 부처님도 엄마가 없으면 어디서 왔겠어요.

세상이 달라지려면 어머니들 생활 습관부터 달라져야 해요. 과소비 풍조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자꾸 자제하세요. 될 수 있으면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흥가분하게 안팎으로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사는 습관들을 하루라도 들여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국회 의원 되고 돈 많이 벌고 지위나 명예가 뛰어나고, 물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공한 인생은 자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예요. 농사를 지어만 놓았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면 그건 농사꾼의 허물이에요.

부부 생활은 긴 대화입니다. 사랑이 담겨 있는 아주 긴 대화예요. 대화는 정情的 표시가 아닙니까? 좋아하는 사이끼리 만나면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운 사람들 만나면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요. 말문이란 그런 거예요.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안에 쌓아 두었던 것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우정이죠. 대화를 통해 흠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부끼리, 집안 식구끼리 대화를 가지려면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내나 어린 자식이나 대등한 인격체로서 대해야 됩니다. 아유 우리 마누라가 뭘 안다고, 저 녀석 만날 그 소리,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등한 인격으로 대해야 서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일방적인 훈계나 타이름은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둘째, 허심탄회하게 빈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화와 소통이 안 됩니다. 한집안 식구라 하더라도 가까이서 지켜보면 어떤 고정 관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는 나이가 붙지만 영혼에는 나이가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때 묻지 않고 순수하기 때문에 더 지혜롭고 발랄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는 토론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마음과 느낌을 나눔으로써 오해가 풀리고 이해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해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무 저의 없이 말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알아듣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열린 마음으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대화에는 이기고 지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내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의 느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대화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느낌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해요. 또 자신의 느낌이 거절당할 때 내 자신이 거절당한 걸로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고 창의력이 개발돼요. 묵살되거나 거절당하면 영 기분이 나빠져요. 이와 같이 느낌을 통해서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대화하는 입장에서는 가끔 처지를 바꿔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마찰이 옵니다. 서로 어울려 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후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정에서 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칭찬과 격려의 말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유교적 영향일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외국에서는 칭찬 격려 얼마나 합니까? 가족이 곁에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 이걸 굉장한 거예요. 평생 가는 겁니다.

(끝.)

4. 법정 스님 따라하기

천한 사람 2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숫타니파타》와 그에 대한 강론을 연재합니다.

127 나쁜 일을 하면서,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숨기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28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면서, 그쪽에서 손님으로 왔을 때는 예의로써 보답하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찾아온 손님을 기꺼이 맞으라는 교훈은 고대 인도에서 널리 강조되었다.)

129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결식^{ᄃᆞᄫᆞᆫ}하는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0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바라문이나 사문에게 욕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1 어리석음에 이끌려 변변치 않은 물건을 탐내어 사실이 아닌 일을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2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비굴해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3 남을 괴롭히고 욕심이 많으며, 인색하고 덕도 없으면서 존경을 받으려 하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4 깨달은 사람을 비방하고 출가자나 재가 수행자들을 헐뜯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135 사실은 성자(아라한)도 아니면서 성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전 우주의 도둑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천한 사람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한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참으로 천한 사람이요,

(*깨닫지 못했으면서 자칭 깨달았노라고 하면 가장 큰 거짓말^{ᄃᆞᄫᆞᆫ}이 되어 승단으로부터 축출을 당한다.)

136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요,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요.

137 나는 한 사람을 예로 들겠으니 이것으로 내 말뜻을 알아들으시오. 찬다라족의 아들이며, 개백정 마탕가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있었소.

(*찬다라족은 천민의 한 종족이다. 그들은 주로 도살업에 종사했다.)

138 그 마탕가는 얻기 어려운 최상의 명예를 얻었소. 많은 왕족과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려고 모여들었소.

139 그는 신들의 길, 더러운 먼지를 떨어 버린 성스러운 길에 들어섰으며, 탐욕을 버리고 범천의 세계에 가게 되었소. 천한 태생인 그가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

140 《베다》를 외는 자의 집에서 태어나 베다의 글귀에 친숙한 바라문들도 때로 나쁜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소.

141 이와 같이 되면 현세에서는 비난을 받고 내세에는 나쁜 곳에 태어나요. 신분이 높은 태생도 그들이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비난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소.

(*나쁜 곳이란 한문으로는 악취^{ᄃᆞᄫᆞᆫ}, 악도^{ᄃᆞᄫᆞᆫ}라고 번역한다. 흔히 지옥, 아귀, 축생을 말하는데 수라^{ᄃᆞᄫᆞᆫ}를 추가하기도 한다.)

142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요.”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말했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 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또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볼 것이다’ 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듯이, 당신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도를 닦는 수행자의 모임^{ᄃᆞᄫᆞᆫ}에 귀의합니다. 당신 고타마께서는 저희들을 재가^{ᄃᆞᄫᆞᆫ} 수행자로서 받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바른 법으로써 세상을 가르친다

선왕이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대자당행(大慈幢行)을 닦으면서
그것을 가득 채웠느니라.
나는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이 법을 묻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닦아서 장엄했다.
나는 왕이 되고,
이 법으로 가르치고,
또한 이 법으로 거두어 준다.
이 법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이 법으로 중생을 인도하고,
이 법으로 중생을 수행케 하고,
이 법으로 중생을 나아가게 한다.
이 법으로 중생에게 방편을 주고,
이 법으로 중생이 익히도록(熏習) 하고,
이 법으로 중생이 행을 일으키게 하고,
이 법으로 중생이 법의 성품에 머물러
생각하게 하고,
또 이 법으로 중생이 인자한 마음에 머물러
인자함으로 근본을 삼아 인자한 힘을 갖추게 한다.
이와 같이 해서 이로운 마음, 안락한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거두어 주는 마음,
중생을 보호해 버리지 않는 마음,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데
쉽이 없는 마음을 얻게 한다.

나는 이 법으로써 모든 중생이
끝까지 즐겁고 항상 기뻐하며,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시원함을 얻게 한다.
또 이 법으로써 생사의 애착을 끊고,
바른 법의 낙을 즐기워하며,
번뇌의 때를 씻고 악업의 장애를 깨뜨리게 한다.
생사의 흐름을 끊고 진실한 법의 바다에 들어가며,
모든 윤회의 길을 끊고
온갖 지혜를 구하며,
마음 바다를 깨끗이 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내게 한다.
나는 이와 같이 이 대자당행에 머물러
바른 법으로써 세상을 가르친다.
선남자여,
내 국토에 있는 중생은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궁핍한 어떤 중생이 내게로 와서
어려움을 말하면,
나는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도록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쁜 짓 하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며,
여러 소견을 일으키지 말고 또한 집착하지 말라.
만일 필요한 것이 있거든 나를 찾아오거나
온갖 물건이 갖가지로 갖추어져 있는
네거리에 가서 조금도 어려워 말고
마음대로 가져가라.’
이 묘광성에 사는 중생은
모두 보살들로서 대승의 뜻을 발했으며,
마음의 욕구를 따라 보는 것이 같지 않다.

어떤 이는 이 성을 보고 좁다 하고
어떤 이는 넓다 하며,
땅이 흙과 모래로 이루어진 줄 알기도 하고
온갖 보배로 장엄된 줄 알기도 한다.
집들이 흙과 나무로 지어진 줄 알기도 하고,
궁전과 누각과 창호와 난간과 문들이
모두 보배로 이루어진 줄로도 안다.
만일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고 선근을 심었으며,
부처님께 공양해
온갖 지혜의 길로 나아갈 마음을 내어
일체지으로써 구경처(究竟處)를 삼으며,
내가 과거에 보살행을 닦을 때 거두어 주었다면,
이 성이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된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모두 더러운 줄로만 안다.
선남자여,
이 국토에 있는 중생이 오탁악세(五濁惡世)에
나쁜 짓을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가엾이 여기고 구호해,
그들에게 보살의 큰 자비가 으뜸이 되어
세상을 따라 주는 삼매에 들어가도록 한다.
이 삼매에 들 때는
중생이 지닌 두려워하는 마음,
해롭게 하는 마음,
적대시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들이 저절로 소멸된다.
왜냐하면, 보살의 큰 자비가 으뜸이 되어
세상을 따라 주는 삼매에 들어가면
으레 그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다른 옷은 입을 수가 없네

“하늘에도
연못이 있네”
소리치다
깨어난 아침

창문을 열고
다시 올려다본 하늘
꿈에 본 하늘이
하도 반가워

나는 그만
그 하늘에 폭 빠지고 말았네

내 몸에 내 혼에
푸른 물이 깊이 들어
이제
다른 옷은
입을 수가 없네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 3일(목)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숲 기행 : 8월 26일(토) / 강원도 양구군 해인마을 DMZ편치볼 둘레길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무국 업무 보조, 사옥 청소 봉사자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회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가난한 절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8월 5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백중 합동 천도재(49재)
 - 시간 및 장소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동참금 : 10만 원(가족 및 영가 축원)

3재	8월 2일(수)	호국 영령을 위한 천도재
4재	8월 9일(수)	선망 조상, 부모 형제를 위한 천도재
5재	8월 16일(수)	반려동물 조축
6재	8월 23일(수)	선망 조상, 부모 형제를 위한 천도재
막재	8월 30일(수)	선망 조상, 부모 형제를 위한 천도재

- 설판 접수받습니다. 설판 동참자는 주지 스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동참금 10만 원 이상 자율 보시).
- 영가 지듯 접수받습니다. 영가 지듯은 막재 때 소전해 드립니다.
- 2024학년도 대입 수능 100일 기도 입재 안내
 - 일시 : 8월 9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수능 기도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입재 후 매일 기도는 오후 2시에 봉행합니다.

- 추계관음기도 입재
- 일시 : 8월 31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기초 경전반 - 초발심 자경문
 개강 : 7월 26일(수) (총 5강)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40분
 장소 : 설법전
 수강료 : 5만 원 (교재 포함)

참선 템플라이프(TEMPLE LIFE)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매월 첫째 주는 다라니기도로 대체합니다)
 장소 : 설법전
 참가비 : 1만 원
 ※ 예약 및 자세한 일정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templestay.com)를 참고하세요.

● 8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지장재일	8월 4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다라니기도	8월 5일	오후 6시~8시 30분	극락전
관음재일	8월 1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8월 1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8월 3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번호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